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5.(월) 18:00
(지 면) 2026. 6. 16.(화) 조간

윤호중 장관, 산림청 방문해 직원들에게 포상금과 커피차 전달

- 산불 피해 99% 감소 견인한 산림청 직원 격려 및 현장간담회 진행
-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문화 확산 노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수 운영 사례 확산을 위해 산림청을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수시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 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해당 기관을 즉시 격려하는 ‘수시 포상’을 병행하여 각 기관의 제도 운영 역량을 한층 높여나가고 있다. 이번 수시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산림청에는 우수 운영기관 포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 산불 피해 99% 감소 견인, 성과 창출 기여 공무원에게 ‘즉시 보상’ 실천

행정안전부는 산림청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산림청은 올해 ‘국가 총력 산불 대응을 위한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예방·대비·대응 전 단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면적이 전년

대비 99% 감소했으며, 주민 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산림청은 이러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

>> 윤호중 장관, 6월 15일 산림청 직접 방문해 현장 격려 및 음료 차량 전달

윤호중 장관은 6월 15일(월)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대형산불 방어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산림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커피차를 전달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사회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산림청 사례처럼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우수 운영 모델이 전 부처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참여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종욱 (044-205-2201)
		담당자	서기관	신화영 (044-205-2213)
		담당자	사무관	신새리 (044-205-2211)

